



## 「국내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발전방향」 설문조사

국내 전자상거래 전반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구축을 위한 'EC 기초자료 설문조사'가 국내 전자상거래사업자(EDI, B2B, B2C)와 일반기업체 등 260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조사방법은 B2B 사업자 90개사와 B2C 사업자 20개사 등 110개사를 대상으로 시험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EDI 사업자, B2B 사업자, B2C 사업자, 일반기업체 등 2500개사를 대상으로 본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 업체는 EDI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EDI망 연결 사업자를 통해 이용 중인 Vertical(조달/구입 사업자 포함, EDI 서비스 제공업체 제외, 거래사업자 명부 활용) 및 인터넷 도메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문만 가능한 B2B 사업자 대상 업종별 표본설정으로 500개사를 선정했다. 또 B2B사업자의 경우에는 협회 보유 B2B사업자 및 인터넷도메인 조사를 통해 결제 등의 거래형태가 확인된 B2B 사업자(신문, 방송을 통해 확인된 B2B사업자 포함, 타기업을 위한 B2C 쇼핑몰 대행 운영업체 제외) 대상 200개사를 선정, 조사한다. B2C사업자의 경우에는 협회 보유 B2C사업자 및 인터넷도메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B2C사업자(신문, 방송 등을 통해 확인된 B2B사업자 포함) 데이터를 이용하여 1000개사를 선정했다.

일반기업체의 경우에는 협회 보유 고용조사 업체 대상 업종별 표본설정으로 800개사를 선정했다. 조사방법은 시험조사의 경우 조사원을 통한 방문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실시하고, 본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을 통한 전화 및 팩스 조사 △조사대상 중 B2B, B2C 사업자는 전수조사 △EDI·일반기업체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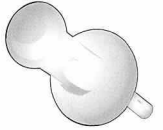
한편, 이번 조사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6월 말경 발표될 예정이다. 수출증진 및 국내기업 진출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회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통신 업계의 이해를 높여 관련부문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 시설 및 민간연구소 시찰을 통해 정책입안 실무자의 관련 현황파악 도모 및 정책 수립시 이러한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제7회 인터넷 정보검색사 2급 필기시험 시행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 1500만 명 돌파와 함께 날로 인기를 더하고 있는 인터넷정보검색사 시험이 지난달 28일 서울,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협회 부설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는 지난 5월 28일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인천 대전 청주 전주 원주 제주 등 전국 11개 주요 도시 33개소에서 제7회 인터넷정보검색사 2급 필기시험을 시행했다. 이번 필기시험에는 전국적으로 3만여명이 응시해 90%라는 역대 최고의 응시율을 기록함으로써 정보검색사 자격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감을 보여줬다.

한편 이번 시험의 합격자 명단은 6월 8일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 제6회 정보통신포럼 개최 「지식기반경제의 도전과 대응」

제6회 정보통신포럼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보통신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지식기반경제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 경상현 전 장관은 “지식기반경제란 부를 창출하는데 우수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을 개척하고 생산하는 경제”라고 정의한 뒤 “지식기반경제는 각국이 자본이 이동하고 기술 확산 속도가 빠르며, 상



품이 저비용으로 생산되는 국제경제 속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에 천연자원, 토지 및 값싼 노동력에서 뚜렷한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지식, 기술 그리고 창조성에 의한 잠재적인 우위만이 있을 뿐인 우리나라는 지식기반경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찬을 겸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 경상현 전 장관은 주제강연을 ‘통신망의 개방과 이용자 중심의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인터넷과 E-비즈니스(Internet and E-business), 인터넷 기술(Internet Technologies), 도전의 기회(Meeting the Challenge)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설명했다.

## 「EXPO COMM KOREA 2000」 개최

IMT-2000, 무선인터넷, 블루투스 등 차세대 무선통신시장을 주도할 신기술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EXPO COMM KOREA 2000’ (국제 정보통신 및 이동통신 전시회 / 세미나)가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COEX 1층 태평양관에서 국내외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E.J.Krause & Associates, INC., COEX 등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15개 국가의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이 참여해 전시면적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은 물론, 명실공히 국제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번 행사에 전시된 품목들은 IMT-2000 시스템 및 단말기, 블루투스, WAP, 이동통신교환기·단말기·부품·안테나, 무전기, PCS단말기, 셀룰러·PCS중계기, GP시스템, 커넥터, 계측기, 핸드프리, 케이블어셈블리 등 첨단기기 및 부품들이다.

또, 이번 전시회 기간 중에는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IMT-2000, 블루투스, 무선인터넷 등 신기술 관련 세미나도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3G(IMT-2000), 무선인터넷, 블루투스 등의 주제를 놓고 한국통신, 루슨트테크놀로지스, 노키아, 노텔네트웍스, 퀄컴, 로커스, 세테크 등의 관계자가 연사로 나와 최신 기술을 발표했다.

한편 국내 정보통신 업계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계의 정보통신 및 이동통신 분야의 차세대 신기술 및 첨단 제품의 흐름 파악과 이를 통한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터넷정보가전 산업협의회」 창립 기념식 갖고 공식 출범

인터넷정보가전산업협의회(회장 정병철 LG전자 사장)가 지난달 17일 서울 잠실 호텔 롯데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200여 회원사 5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정보가전산업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협의회는 국내의 대표적인 가전, 정보통신, 건설업체와 언론, 연구학술기관 등이 뭉쳐 그랜드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 국내 인터넷정보가전 기술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협의회 창립기념식에 앞서 16일에는 정보통신부와 각 기업 및 연구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정보가전 표준포럼 창립총회가, 16·17일 이틀 동안에는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정부측과 업계 및 유관단체의 관계자가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정보가전 워크숍이 개최됐다.

